

# 문학·골목·마을의 만남...목포시 골목길 문학축제

### 5~6일 북교동 차범석길 일대서...문학상 시상·최백호 낭만 북콘서트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공연·이색 전시...추억의 골목놀이 8종 경연도

‘문학의 도시’ 전남 목포시가 문학을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목포 골목길 문학축제’로 가을 문학의 향연을 연다.

목포시는 목포문학의 산실이자 한국문학의 거봉을 다수 배출한 북교동 차범석길 일대에서 5일부터 6일까지 골목길 문학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시월에 문학여행 목포 골목길 문학축제는 ‘문학, 유토피아 문학마을을 만나다’란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막식, 골목길 문학 전시, 공연, 체험 및 독립서점 페어, 차범석 탄생 100주년 행사 등 다양한 문학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5일 개막식에서는 제16회 목포문학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퓨전 국악그룹 ‘루트머스’ 공연과 함께 가수 최백호의 낭만 북콘서트가 진행된다.

노래 ‘낭만에 대하여’로 유명한 낭만가객 최백호는 지난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라는 산문집을 발간한데 이어 이번에 직접 책 낭독과 노래 공연을 선보인다.

차범석길 화가의 집 야외마당에서는 지난 8월 서울에서 개최됐던 희곡열전 수상작 전승세 작가의 ‘포대령’이 극단 동양리퍼토리에 의해 낭독극

으로 만날 수 있다.

또 골목길에서 펼쳐지는 문학길 오케스트라 공연, 근대음악극 청춘연가, 시와 음악의 만남 등 다양한 공연이 골목 곳곳에서 열린다.

이색 전시회도 함께할 수 있다. 골목길 빈 집을 활용한 어린왕자 문학관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 생텍쥐베리의 ‘어린왕자’를 목포 출신 문학평론가 김현이 최초로 번역 국내에 알렸으며, 목포 출신 황현산 작가가 새롭게 번역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보성에 있는 어린왕자 선(禪) 문학관과 협업으로 어린왕자 문학관을 열고 어린왕자 북토크, 공연, 나만의 어린왕자 티셔츠 만들기, 어린왕자 옷 입고 사진찍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북교동 마을 골목길 곳곳은 문학의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한다.

극작가 차범석의 생가가 있었던 자리인 현 빌라 주차장에서는 차범석 작가의 문학을 피아노와 클래식 공연, 팝트 퍼포먼스로 즐길 수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나만의 이색 책방콘서트도 진행된다. 게스트하우스에서는 근대 이상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예쁘게 조성된 할머니집 정원에서



목포 골목길 문학축제 포스터.

꽃구경도 볼거려다.

마을 골목길에서 다양한 7080 추억여행도 떠나 볼 수 있다. 그동안 비어있던 옛 현진슈퍼 건물에서는 추억의 문방구와 만화방이 들어선다.

또 나는야 골목대장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가족, 친구와 함께 추억의 골목놀이 8종을 즐길 수 있다. 골목놀이는 목포문학관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

하면 된다.

문학 축제인 만큼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와 이색 책을 만날 수 있는 독립서점페어도 함께 한다.

소설가 은희경과 김세희의 북토크, 지난해 목포문학박람회 청년 신진작가 출판 오디션 수상작가들과의 만남, 올해 목포문학상 수상작가와의 대화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전국 24개 이색 독립서점의 특별한 북큐레이션과 책을 만날 수 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시민시낭송대회, 딱지와왕&어린이문학캠프, 주민 시화전, 박화성 백일장대회 등이 개최된다. 반일불도서관 2층에는 예술로 지원사업으로 북교동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북교동 아카이브 전시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극작가 차범석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가 특별 이벤트로 개최된다.

그림으로 만나는 드라마 전일일기 야외 전시, 차범석 전국 청소년 독백대회, 연극공연, 학술대회, 목포대 국문과 학생들의 차범석 작품 스토리텔링 행사 등도 볼거려다.

차범석 작가 외에도 목포출신 김우진, 박화성, 김현 선생의 삶과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4인4색 문학제도 함께 행사 기간 동안 개최된다.

박화성 목포시장은 “북교동은 한국문학의 산실인 만큼, 그 자체가 지붕 없는 문학관이다”면서 “올 가을 가족, 연인이 골목길 문학축제에 함께해서 문화와 함께 휴식과 힐링을 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흑산도에는 미술관이 있다’ 신안군, 31일까지 사진전

국토 끝심 전남 신안군 흑산도 박득순 미술관에 서 오는 31일까지 ‘흑산도에는 미술관이 있다’ 사진전이 열린다.

한국사진작가협회 풍경분과위원회가 주관하며, 일상의 소소한 풍경부터 대자연이 선사하는 거대하고 웅장한 풍경까지 7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풍경분과위원들이 대한민국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작업해 온 작품도 관람할 수 있다.

참여 작가들은 도심을 벗어나 여행객들에게 위안이 되고 일평생 흑산도를 지키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세상을 이야기해주는 벗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시회를 마련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박득순 미술관은 흑산도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근거리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맛뚝무안몰’ 쌀 소비 촉진 무안군, 8일까지 할인 행사

무안군 온라인 쇼핑몰 ‘맛뚝무안몰’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무안군은 오는 8일까지 1인당 5매의 할인 쿠폰을 지급해 맛뚝무안몰에 입점한 모든 쌀과 잡곡을 2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미슬랭 기획전’을 진행한다.

맛뚝무안몰은 지난 5월과 7월 추진한 쌀 할인 기획전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인 매출을 기록한 바 있어 이번 쌀-잡곡 할인 행사도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쌀 가격 하락과 소비 감소로 벼 재배 농가의 상심이 큰 요즘 무안 쌀 소비 촉진 많은 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다양한 기획전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 완도군, 세정 소식지 14호 1주년 기념 특집호 발행

완도군이 세정 소식지 제14호(특집호)를 발행했다.

지난해 8월 세정 소식지 첫 호 발행 이후 1주년을 기념해 특집호로 구성했다.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 군 자체 세무조사 계획과 2023 회계연도 결산 정보, 상속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 위탁사 시청 피싱 메일 주의 안내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2월 완도군의 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완도군 모범 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선정과 지원 범위 등에 대한 내용도 소개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해남김 홍보 노래 중독성 있네”

### 해남군 고구마·배추 이어 CM송 공무원들 출연해 단체 안무 눈길

해남군이 큰 화제를 모은 고구마송, 배추송에 이어 김송을 제작해 해남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해 화제다.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김송’은 땅끝마을 해남김을 주제로 ‘맛있는 해남김’이 반복되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한번 들으면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멜로디가 매력적이다.

특히 군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해 노래에 맞춰 단체 안무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젊은 세대로 구성된 공무원들은 영상 촬영을 위해 한달여 간의 맹연습 끝에 해남김의 맛을 담아낸 짹짹한

안무로 표현해 냈다.

해남군은 해남ESG송을 비롯해 주요관광지를 소개하는 해남어때송, 고향사랑기부제와 정령정책 등 주요 정책을 노래로 담은 CM송을 제작해 왔다.

고구마송과 배추송은 해남 특산물 홍보에 활용해 화제를 모으며, 출연 직원들이 ‘배추맨’으로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해남김 노래는 해남군 홈페이지(https://www.haenam.go.kr 열린군정)군정자료실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군에서도 CM송을 각종 축제, 행사, 공연, 농산물 판촉행사 등에도 널리 활용해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김 노래는 누구나 재미



해남김 홍보 노래 ‘해남김송’.

있고 쉽게 흥얼거릴 수 있도록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많은 분들이 활용해 해남을 널리 알리

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진도군, 권익위와 함께 군민 고충 해결...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진도군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진도군청 종합상황실에서 군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 기관의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지역 주민들

의 고충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처리하는 제도로 현장 중심의 고충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상담에는 진도군민뿐 아니라 인접한 목포와 해남 주민들도 함께 참석했다.

주민들은 각종 행정, 복지, 노동, 농림, 환경, 교통, 법률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겪고 있던 불편과 고충을 상담받기 위해 방문했다.

전문 조사관들은 사전 예약된 민원과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 총 55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민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23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며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해 군민의 고충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고 민원 만족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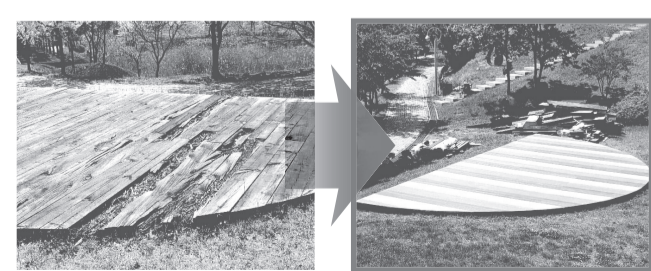
###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